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14강, 바울의 특정 구두 보고/소문에 대한 대응, 고린도전서 5:1-6:20

© 2024 게리 미도어스 및 테드 힐드브랜트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도어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14번째 강의, 특정 구두 보고/소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
고린도전서 5:1-6:20입니다.

고린도전서 여정의 14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1장에서 4장을 살펴보고, 다음 몇 세션에서는 5장과 6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서론에서 기억하시겠지만, 1장부터 4장은 1:11에 근거한
것으로, 클로에의 집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문제에 대한 보고입니다. 5장과
6장은 5:1에 근거한 것으로, 특히 성행위와 법정과 관련된 고린도의
행동에 대한 특정 소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7:1과 그 이후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그에게 쓴 내용에 응답합니다.

오늘은 노트패드 번호 8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5장을
살펴보고, 전체 장을 다 하기를 바랍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5장과 6장의 요약에 관해서는, 우리가 언급했듯이, 5:1에 언급된 구두
보고에 응답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섹션의 시작
부분에서 Garland의 요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다가올 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훌륭한 종합을 제공합니다. 특히 5장의 첫 부분에서
제기되는 성적 문제와 관련하여, 성경 밖에서 근친상간을 지적하는 참조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은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모랄리아 라는 글을 썼는데 , 그는 근친상간을 불법 행위로 비난했습니다. 약 37세에서 100세까지 살았던 요세푸스는 신약을 공부할 때 매우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세푸스는 예수와 사도들의 시대 이후의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7년에 태어났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50년대에는 어린아이였으며, 요세푸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세푸스, 우리는 요세푸스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군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정치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그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66년에서 70년 사이의 대전 당시에 매우 관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의 동포들은 그가 로마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그를 보호자로 삼아 로마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유대인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그는 매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유산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요세푸스가 고대사에서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6페이지에서 이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통에 관해서는 모세가 그것을 완전히 금지했고,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여겼으며, 아이들이 진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도시와 가족 모두에게 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모세를 대신한다고 말했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시와 가족 모두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여기서 약간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레코로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로마 식민지 시대에 매우 활동적이었고, 우리는 이미 로마 식민지의 중심이 도시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브루스 윈터의 책, *Seek the Welfare of the City*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문화적 규범이 도시와 그 도시 내의 사람들의 구조를 중심으로 했다는 사실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할 때 자신의 시대를 약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이 진짜인 것으로 알려져야 할 도시와 가족. 그는 남자가 어머니와 자는 것을 가장 큰 범죄 중 하나로 혐오했고, 아버지의 아내와 자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요세푸스는 고린도전서 5장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만약 그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면, 확실히 이것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에 따르면, 모든 가증스러운 사악함의 사례로서, 이모, 자매, 아들의 아내들과 함께 말입니다. 이것의 많은 부분은 성행위와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정액을 나누는 것이었고, 그 정액을 가족끼리 나누는 것은 근친상간이었습니다.

왜 한 몸이 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 사람들이 결혼하면 한 몸이 됩니다.

글쎄요, 그 맥락에서 한 몸은 친척이라는 은유입니다. 그들은 친족입니다. 결혼하면 배우자와 친족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매우 보호받습니다.

요세푸스는 또한 남자를 금했거나, 모세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모세가 아내가 자연적 정화로 더럽혀졌을 때 남자가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금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는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모세가 말했을 수 있는 몇 가지 말과 모세가 하지 않았을 수 있는 몇 가지 말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자신의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가까이 하지 말고, 수간도 하지 말고, 남자와의 동침도 하지 말고, 아름다움 때문에 불법적인 쾌락을 사냥하는 동성애도 하지 말라. 그런 무례한 행동을 저지른 자들에게, 모세를 대신하지만 실제로는

당시의 유대교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그는 그들의 처벌로 죽음을 정했다. 그러므로 성경 안팎에서 근친상간은 용납될 수 없다.

원터는 이것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재건을 하고, 근친상간을 저지른 남자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재건하고, 그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로마 사회 윤리를 위반하는 일이었을 것이며, 교회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1장에서 4장까지 생각해 보면, 사회적 지위 문제가 발생하고,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 기본적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이 사람이 계모가 되었을 것이고, 그가 도시 내에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 행동에 대해 손을 뻗는 것은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그 지역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카펫에 눕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그의 지위를 선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적 윤리를 어겼을 것이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럼, 실례합니다. 이 카메라를 확인해야 합니다. 뭔가 들렸어요. 우리가 여전히 여기서 녹화하고 있고 끊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다시 해야겠어요.

모든 게 괜찮아 보여요. 저는 이걸 혼자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끔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말하고 나서 다시 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 건 싫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둘째, 66페이지, 2/3 지점입니다. 이 남자의 지위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차원은 후원자일 수 있습니다.

후원자는 이 기간 동안 길드나 그룹을 지원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기술 용어였으며, 교회에는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클로에가 아마도 교회의 후원자였을 것이고, 이러한 가정 교회는 종종 예배를 위해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 수단을 갖추고 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후원자를 화나게 하면 지역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심지어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면, 글썄, 이건 어리석어. 그들은 옳은 일을 위해 싸워야 해. 하지만 그 문화가 지위에 의해 통제되었다는 사실, 지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었다는 사실, 도시에서 권력을 가진 지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도전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그들은 삶에 대한 지침을 얻기 위해 지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만약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실제로 지위 있는 사람이거나 후원자였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 중 일부로 돌아가겠지만, 구조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Talbert를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그가 구조를 어떻게 보는지 보기 위해 그를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읽으면 알게 되겠지만, Talbert는 카이아즘을 보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사실, 노트에 있는 철자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카이아즘이라고 쓰여 있을 수 있습니다. M 앞에서 I를 빼세요. 그게 카이아즘입니다.

I는 없습니다. SM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아즘, 카이아스무스, 카이아스틱이 있죠. 이건 어떤 종류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A는 5장의 성적 문제입니다. B는 6장의 소송입니다. 그리고 A 프라임, 뒤에 별표가 붙은 A는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간통의 이름으로 성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아즘일 수 있습니다. 카이아즘은 시작할 때, 힌지가 있고,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간략할 것입니다.

가능하지만, 그는 때때로 그것들을 어디서나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아즘은 고대 세계에서 매우 흔한 문학적 기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오경을 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에는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꽤 긴 이야기이고, 홍수 이야기 전체가 카이아즘입니다. Wenham, WENHAM, Wenham이 Vetus 에 쓴 글이 있습니다. Testamentum , 그럴 것 같아. 하지만 Wenham을 찾아가면 Gordon 이 있고, 이 사람이 Gordon이었던 것 같아. Gordon과 John이 있어.

하지만 그는 홍수 이야기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체 홍수 이야기가 어떻게 이런 종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차트를 보여주고, 그런 구조에서 각 요점은 다른 요점에 답합니다. 중심이 어디인지 맞춰보세요? 홍수 이야기의 바로 중심은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홍수를 연습하시고 세상을 다시는 그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으실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홍수 이야기의 바로 중심입니다. 따라서 카이아즘은 고대 문학적 배경에서 매우 흔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읽으면서 이 장들에서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강조가 주어졌는지 주목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소문과 문제를 자극하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저명한 남자와 그의 계모가 있습니다. 법정 사건의 문제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고 일반적으로만 식별됩니다.

5와 6은 이러한 문제를 커뮤니티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위험을 만든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였습니다. 커뮤니티가 일탈적인 행동을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옛 누룩을 깨끗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이미지입니다.

공동체는 신성한 공간의 사원입니다. 그것이 말할 때, 당신의 몸이 신의 사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어떤 텍스트는 그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신의 사원입니다.

어떤 텍스트는 복수형을 사용하는데, 이는 교회가 신의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5장과 6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공동체적 측면을 살펴보고, 개인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67페이지 맨 위에 주제적 응집력이 있습니다.

갈등, 자부심, 슬픔으로 가득 찬 공동체는 5장과 6장에 나오는 성적, 법적 사례 연구에서 입증됩니다. 바울은 6.5장에서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문화권에서는 수치심, 특히 죄책감을 수치스럽게 여겼거나 지위를 수치스럽게 여겼거나 무엇이든 간에 매우 강력한 윤리적, 도덕적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단어를 활용합니다.

그는 그들의 문화에서 그들의 자기 관점과 명예를 위협하는 수치심에 호소합니다. 그는 5:9-11과 6:9-10에서 악덕 목록을 사용합니다. 악덕 목록은 인용문에 넣었는데, 신약 이전부터 존재했고 신약 안에도 존재했던 덕과 악덕 목록이라는 거대한 문학적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웹사이트 gmeters.com에서 이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과 성령의 열매에서.

거기에는 짧은 영상이 몇 개 있지만, 1시간짜리 강의도 몇 개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 저는 덕과 악덕 목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덕목 목록이고, 육신의 행위는 악덕 목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밖과 성경 안에 있는 이러한 미덕과 악덕 목록은 선과 악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장 자체를 살펴보면, 이 간략한 소개 후에 67.a 페이지에 바울이 스캔들 도덕성에 대한 보고에 응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5장입니다. 스캔들 도덕성. 우선 그는 1-8절에서 근친상간 문제에 응답합니다. 이것들은 매우 짝 찬 구절입니다.

그는 1절에서 근친상간의 사실을 지적하고, 그런 다음 2-8절에서 회개의 부족을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친상간의 사실과 이 8절의 큰 문단 후반부에서 근친상간에 대한 고린도인들의 회개의 부족. 5:1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보고된 것은 바울이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비록 그것이 이 사건의 계기가 되더라도요.

하지만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몸으로서 그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 구성원이 규범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온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신은 가면을 쓰고 톤토를 가진 위대한 카우보이의 미국식 관용어를 사용하는 외로운 레인저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에서 외로운 레인저가 아닙니다.

항상, 항상, 항상 공동체입니다. 진행 중이었던 상황입니다. 글썄요, 여기 텍스트를 살펴보죠.

5장 1절에서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성적 도덕성이 있다고 보고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적 도덕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입니다

현재 부정사는, 그리고 여기 후반부는, 남자가 아버지의 아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NIV는 그가 아버지의 아내와 자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단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좋은 동적 동등어입니다. 킹 제임스는 그가 아버지의 아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공식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좀 더 부드럽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 명령형이며, 이는 진행 중인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진행 중인 문제입니다.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레위기를 볼 수 있고, 신명기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의 부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교회에 행동하지 않을 변명을 제공했을까요? 다시 말해, 이 남자가 계모와 결혼했다면요.

이제 우리는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든 죽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에 대해 제기되지 않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폴이 개인의 복잡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는 커뮤니티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마도, 단지 시나리오로서.

논쟁을 위해 그의 아버지가 실제로 아직 살아 있다고 가정해 보자 . 그것은 근친상간일 것이다.

1세기의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죽었더라도 근친상간입니다. 구약성서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글썄요. 그가 결혼했다면 관참을 겁니다.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끝났잖아요.

글썄요, 저는 바울이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 질문은 교회의 행동이 사회 구조에 의해 방해받았는가? 이 지위 문제는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그가 정기적으로 함께 살고 있고, 그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 텍스트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것이 저울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설자들은 그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교회가 적어도 문화적 수준에서 그에게 도전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너무 과장하지 맙시다.

기억하세요, 이들은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접하고, 자신의 배경에서 온갖 영향을 받았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그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총알. 이교도보다 더 나쁜 관행. 유대교 법은 그것이 더 나쁘다고 말한다.

외부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리처드 헤이즈는 고린도전서에 대한 또 다른 훌륭한 주석가입니다. 요약이 잘 되어 있어서 좋은데, 종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Hayes의 글을 좋아합니다. 그는 훌륭한 작가입니다. 그는 이 점에서 Cicero를 인용합니다.

67페이지에 또 다른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축복해 줄 사람이 없는 사위와 결혼합니다.

아무도 그 연합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적인 불길한 예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 그 여자의 죄를 생각해 보라.

믿을 수 없다. 모든 경험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단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키케로는 분명히 자신의 시간과 공간에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없는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가부장적인지 주목하세요.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 사람은 여자입니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글썄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많은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여자가 비난을 받았죠.

그녀의 사악한 열정을 생각해 보세요. 억제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겁먹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복수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라틴어로 신들의 힘을 뜻합니다.

아니면 남자들 사이의 스캔들. 적어도 결혼식 햇불이 있는 밤 그 자체 전에. 신방의 문턱.

그녀의 딸의 신혼 침대. 아니면 그 다른 결합을 목격했던 벽 자체. 열정의 광기.

나는 돌파하여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렸다. 정욕이 검손을 이겼다. 방탕함이 근면함을 이겼다.

이성보다 광기. 와우. 키케로는 꽤 설교자였지, 그렇지? 뭐, 이걸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겠지.

너무 흥분하기 전에 짐을 싸세요. 우리는 흥분해야 합니다. 우리 환경에서 이런 종류의 설교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도덕성에 대해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력합니다. 키케로의 글. 키케로는 연설가였습니다. 그는 능숙하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단어를 사용하고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에서요.

당신이 성경에 대해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 이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당신의 수단입니다.

당신은 그저 스크린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와 다른 제작사들이 쓰는 모든 돈을 보세요. 놀라운 그래픽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리고 요즘 그들이 할 수 있는 재건. 하지만 사람이 일어나서 야웨를 대표할 때. 우주의 참된 신.

우리는 우리의 말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키케로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이나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는 브루스 메츠거의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그와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년간 그리스어와 신약학 교수였습니다. 훌륭한 장로교인이었습니다. 훌륭한 보수적 장로교 학자였습니다.

주요 국제 그리스 학자. 그리고 그는 이것에 대한 대화에서 한 번 속고했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올바른 단어와 잘못된 단어 사이의 선택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것은 폭죽과 다이너마이트의 차이와 같습니다.

대화에서도 그는 폭죽이나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키케로는 그의 표현에 관해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자신의 문화조차도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풀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게 사실이 아니야. 다시 겨울이 온다. 67쪽 아래

간통과 근친상간은 로마 형법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당시 로마는 소송 사회였습니다. 로마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장군들과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는 장군들에게 통치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변형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정복한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로마가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로마는 조직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는 전투에서 이기고 땅을 정복하는 데 뛰어났다. 하지만 그는 전쟁이 끝난 후 그것을 돌보는 데는 그렇게 능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로마는 그랬다.

그래서 로마가 들어와서 처리했습니다. 로마는 복잡한 법률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수준의 법률이 있었습니다.

6장에서 다룰 법은 아마도 민법 법원에 더 가깝습니다. 이 법은 형법입니다. 로마 제국 내의 근친상간에 대한 법이죠.

그 제국에서도 그것은 형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위반으로 여겨졌습니다. 처벌이 필요합니다.

추방에서 죽음까지. 그러니까 교회는 이 개인을 다루는 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과 근친상간이 관련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로마의 공소시효에 따른 것입니다.

보통 5년이었어요. 적용 안 했어요. 그들이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죠.

지금, 로마 제국에서. 섹스는 널리 퍼졌습니다. 여자가 두 남자만 정기적으로 알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덕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성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 방탕함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성적 방탕함에 대해서. 하지만 로마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아내와 합법적인 남편의 설정을 보호했습니다.

남편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섹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아내와 남편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깨질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서 다른 합법적인 아내를 얻었다면, 그는 간통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법원에 회부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곳곳에 애인을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다른 설정에서 이것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교도보다 더 나쁜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형법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없더라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로마법은 신분이 있는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신분이 있는 사람을 기소할 권리입니다.

로마법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없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있는 사람을 법정에서 데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을 선호하는 법 체계의 서열 때문에. 도시 내에서 지위를 가진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스템 안에서요. 그러니까, 그 중 일부는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6장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간통과 근친상간이 연루되어 있었거든요.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로마법은 이 지위의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근친상간은 공식적인 고발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기소하기 위해서. 특히 신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고린도였을까요? 고린도의 신자 공동체였습니다. 그는 이 사람을 다루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약간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문화적 배경에서. 그들은 그 지위에 신빙성을 부여했습니다.

관습보다는. 그들이 채택한 새로운 종교는 기독교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죄 문제에 대한 꽤 거대한 사실이에요.

둘째, 68쪽에서 바울은 상황에 비추어 회개가 부족한 것을 한탄합니다.

2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여기서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각적인-그리고 엄중한 파문을 요구합니다.

범인의. 그들은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는 범인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5.2의 고린도적 태도. 그리고 당신은 교만하다.

차라리 애도에 들어가야 하지 않았나? 장례식의 은유다.

이걸 자랑스러워하는 대신 장례식을 치러야지. 그리고 네 동료에서 꺼냈지

이 일을 해 온 남자. 이제 기억하세요. 이 글은 공개적으로 읽혔습니다.

이 영상 몇 개 꼭 보고 싶어요. 지상에서 제 삶이 끝나면요. 영상실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읽히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누가 듣고 있는지 보세요. 글썬요, 이 남자는 자랑스러웠어요.

그들은 자랑스럽고 거만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는 앞줄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흥미롭네요. 저는 의심이 많은데, 이 편지를 받은 장로는 다음 날 그것을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글썬요, 어떻게?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이 친구에게 내일은 거기에 오지 말라고 경고했을까요? 아니면 그는 울타리 반대편에 서서 오, 세상에, 이걸 읽을 수 있게 됐어요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환경에서는 인간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상상력이 너무 과하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고린도인의 태도는 교만함의 태도였다. Garland는 교만함이라는 용어, 즉 그리스어 *phusio*는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형식적 동등성에서는 교만함으로 번역된다.

오만하다고 번역되었는데, 같은 뜻이지만, 더 현대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5:2에서 언급될 뿐만 아니라 4:6, 4.:8, 4:19, 8:1, 13:4 에도 언급되어서 캐치워드 역할을 하는 듯합니다. 그것은 서신 전체에 스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회적 환경에 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극도로 오만했습니다.

캐치워드는 아마도 고린도 문제에 대한 그의 비판에서 계속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사회적 구조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능가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이 상황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오만함이 그 남자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었을까? 그는 범인이다. 아시다시피,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수년간의 사역을 통해 미국 교회 문화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 죄를 지은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요 미국적 인물과 아마도 해외에서도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비슷한 시나리오인 듯합니다. 그들은 잡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백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회개하는 듯이 행동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직장을 되찾고 싶어합니다. 글썄요, 저는 폴이 그렇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은 회중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리더십으로 돌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묻히고, 숨겨지고, 잡힐 때까지 자백하지 않으면 성적 죄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들은 밖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일단 그 정도 규모의 윤리를 어기면 다시 그렇게 하려는 유혹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사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받는 것과 교회의 주요 리더십 역할을 맡을 자격을 얻는 것은 다릅니다. 글썄요, 저는 카메라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원하는 만큼 제게 말을 되뇌실 수 있지만, 저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디오와 비디오 강의에는 어느 정도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애도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에 가야 했지, 거만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태도에 대해 잔소리를 한 후에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는 징계에 세 가지로 관여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현존하시고 교회는 그것을 실행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5:3과 4에서 여러분이 모였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초기 교회가 사업을 하기 위해 활용한 구조를 관찰하고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교회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장로를 매우 믿지만, 장로를 지도자로 하는 전체 교회에는 여전히 자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독 목사보다는 장로 리더십의 관점을 적용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문화적으로 종종 그렇듯이요.

그것은 리더십의 복수성이며, 교회가 모일 때 이 리더십에는 회중적 감각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라는 말을 추가하면 교회가 바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이 구절에서 구두점 배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5:5는 번역에 있어서 지뢰밭입니다. 잠깐 살펴보죠. 4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여서 2011 NIV를 읽을 때, 내가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이 현존할 때, 이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 육체를 멸망시키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량은 좋지 않습니다. 다음 미니 문단의 시작입니다. 이제 구두점과 관련된 자세한 해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 번역은 긴 문장을 나누기 위해 마침표, 즉 마침표를 삽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5절은 실제로 한 문장입니다. 이것은 1901년 ASV와 같은 더 공식적인 동등한 성경의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문장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긴 런은 문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RSV는 문장을 그렇게 많이 나누지 않습니다.

NIV는 문장의 중간까지 바로 끊어버리고, 분사절도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고, 더 큰 생각을 유지할 수 없는 문화권에 글을 쓰기 때문에, 더 작은 단위로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3~5절은 한 문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쨌든 영어로는 구두점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어에서 문법적 단위, 즉 구문, 종속절, 전치사 구문은 다양한 순서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영어는 어순 언어입니다. 어순이 전부입니다.

모든 것이 어순이라고 할 수는 없어. 어순이 전부라고. 모든 것이 어순이라고 할 수는 없어.

나는 그 모든 단어를 망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하면 횡설수설이야. 그리스어에서는 단위를 어디에나 놓을 수 있어.

가끔은 주요 동사가 3~4절 동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 1서처럼, 처음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대명사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요 동사에 도달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는 단위를 두는 곳에 강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합니다. 문제는 그 단위를 온갖 곳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문장의 맥락을 다루어야 합니다. 글썄요, 번역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번역의 희생자가 되지 마세요.

번역을 공부하세요. 영어는 다소 고정된 순서를 요구하며, 위치와 구두점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어는 영어가 아니며, 종종 수식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번역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번역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의 예는 이 전치사 구인 in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in은 5.4에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론 전치사입니다. 이제 69페이지 맨 위에 차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제가 선택한 네 가지 버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기 NIV는 58년이나 60년대의 NIV입니다. 그리고 2011년은 정말 넣어야 합니다.

2011년이 이전 NIV를 얼마나 많이 바꾸었는지 보는 게 흥미로워서 제 칼럼을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90%에서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 무슨 일을 하는지 주목하세요.

굵은 글씨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보세요, 앞뒤에 쉼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약속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전에 그것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나중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 독자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그 일을 한 사람에 대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나요? 그는 그렇게 오만했나요? 아니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였을 때, 그것을 거기에 두었나요? 어디에 두려고 하나요? 전치사 구는 항상 부사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지시에서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KJV는 비확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은 독자라면, 당신은 그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읽고 표면적인 가정을 할 텐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NRSV. 시작 뒤에 세미콜론이 있는 걸 보세요. 마치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마치 내가 이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언한 것처럼요.

이제 그것이 바울의 선언적 판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는 아직 KJV에서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NRSV가 KJV보다 얼마나 더 긴지 주목하세요.

여기에는 많은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NRSV는 독자를 돕기 위해 기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심판을 선포하는데 붙어 있습니다.

모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NIV, 초기 NIV, 원본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약 6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글쎄요, 그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져갈지 꽤 분명하게 했습니다. 모인 것.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으로 가져갑니다.

2011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4에서 2011이 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일 때, 나, 즉 바울은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능력이 현존합니다.

그것은 그것을 약간 시작하고, 그것은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공동체가 만날 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NIV는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1은 그것을 조금 더 간접적으로 다룹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가운데에 있다. 그것은 거기서 일어난 일에 대한 비유일 수 있다. 번역.

New Living Translation. 나는 이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시 회수되어 바울의 심판과 그 심판의 일부로서 주 예수의 이름을 주장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 권한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는 도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문구는 앞이나 뒤에 오는 것과 함께 합니다.

글쎄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에 대한 견해가 있지만요. NRSV, 바울은 이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정했습니다. NIV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 알게 되셨죠. 우리는 다시 해석을 하는 영어 번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에 대한 하루의 끝은 아닐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번역이 차이를 만들까요? 무엇을 읽고 계신가요?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는 약간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몇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고, 영어 강의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그 언어의 방식 측면에서 여러 버전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배웁니다. 해석의 관점에서 N의 변형을 살펴보면,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견해, A, N은 이름을 조립했을 때 조립된 절대적 소유격과 함께합니다.

또는 B, 조립된 것과 함께 하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해석합니다. C는 조립된 것과 함께 하는데, 동사는 보다이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과 연결되어 능력으로 전달합니다. D, N은 위탁 또는 전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달합니다.

E, N은 5, 4, 5의 나머지 절을 지배하는데,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대신 전체를 지배합니다. 또는 F, N은 이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했다를 수정합니다. 따라서 문헌과 관련하여, 우리는 대략 6가지 변형을 가지고 있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인가를 어떻게 뉘앙스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진술이고, 권위에 대한 주장입니다.

어디에 첨부하나요? 시슬턴은 그의 주석에서 3~5절의 단일 뒤틀린 문장의 길이와 같은 주석을 인용합니다. 뒤틀린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시슬턴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3~5절의 이 그리스어 복합 문장에서 한 견해를 다른 견해보다 주장하기 어렵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를 통해 우리는 E, 즉 N이 모든 절을 지배하고 언어 행위로서의 지위를 근거로 가장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C, 즉 힘과 연결된 상징은 진지하게 가능한 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F를 제외한 어떤 옵션도 확실하게 제외할 수 없습니다. F는 내가 이미 판단했고, 폴이 이미 판단했다는 것을 수정합니다. 당신이 알아차렸는지 모르겠지만, NRSV와 NLT는 F를 선택했고, Thistleton은 그것이 아마도 좋은 생각이 아닐 유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학문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손을 들어 올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글썄요, 당신은 공부할 것이고, 다양성을 다룰 것이고, 몇 가지 판단을 내릴 것이고, 겸손할 것이고, 당신은 계속 나아가서 당신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전치사 구에 대한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Garland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지적합니다. 그는 N이 남자의 행동을 수정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웃을지 몰라도, 윈터가 로마 고린도와 지위, 후원자, 자유에 대해 오만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분석을 읽고 나면 그렇게 많이 웃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친구가 성경 윤리에 너무 무관심했을 수도 있고, 성경 이야기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 의식이 없었고, 신약은 기록된 만큼 오래되지 않았고, 그는 그것에 충분히 몰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거의 진공 상태에서 행동했지만, 그는 새로운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글썄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실례합니다, 제 계모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글썬요, 우리는 그것이 다소 기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기괴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직 기독교 윤리의 ABC조차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솔직히 말해서, 몇몇 기독교 환경에서, 심지어 미국에서도 때때로 그렇게 오만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화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감안하면 충격적으로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가 여기에서 표현되는 방식의 자연스러운 순서를 유지하지만, 각 단위가 다른 단위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단위가 가장 가까운 단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Garland 자신은 이 관점을 거부하지만, 이 사람이 새로운 이념, 새로운 신학을 주장하는 데 대담했다는 생각은 거부합니다.

나를 봐,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기억해, 그는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 새로운 신학, 이념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어.

로마의 엘리트주의에 비추어 이 텍스트를 재구성하면 대담한 주장이 가능하지만, 상상의 여지가 없는 대중적인 견해가 되었습니다. 글썬요, 저는 5.5에 도달했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친구를 사탄에게 넘길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글썬요, 제 강의가 50분 정도 되었고, 5장을 한 강의에 다 끝내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을 화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 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는 조금 더 짧아질 겁니다. 그러니 다음 강의에서 70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죄 많은 사람, 근친상간을 저지른 오만한 사람을 사탄에게 넘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논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노트와 해설을 읽어보시고 제가 말하기 전에 모든 질문에 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침묵의 시간을 가져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고, 다음 강의에서 뵈겠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14강, 바울의 특정 구두 보고/소문에 대한 응답, 고린도전서 5:1-6:20입니다.